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프랑스, 「오사마 빈라덴」 아들 프랑스 입국 금지 조치
 - 10.9 프랑스는 「오사마 빈라덴」의 아들인 「오마르 빈라덴」을 입국금지 조치를 했으며, 이는 오마르가 지난해 자신의 SNS에 테러를 옹호하는 글을 게시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발표
 - ※ 佛 「브뤼노 르타이오」 내무장관은 오마르는 앞으로 어떤 이유로도 프랑스에 올 수 없다고 성명 발표
- 폴란드 등, 반이민 정책 EU 회원국 증가
 - 10.15 언론은 최근 폴란드 정부가 이주민의 망명 신청을 잠정 중단하는 등 반이민 정책을 채택하는 EU 회원국이 증가하고 있으며, 이는 이슬람 극단주의 이민자로 인해 폭력 범죄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보도
 - ※ EU의 반이민 정책 증가에 따른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등 발생 추이 주의 필요

미주

- 美·캐나다, 팔레스타인 지지단체 '사미둔' 테러단체로 지정
 - 10.16 미국과 캐나다 정부는 공동으로 팔레스타인 지지단체인 사미둔을 테러단체로 지정했다고 발표, 언론은 10.7 밴쿠버에서 사미둔이 주최한 시위에서 시위자들이 '캐나다와 미국에 죽음울'이라는 구호를 제창했다고 부언

중동

- 하마스, 新 수장 20여년만에 자살폭탄 테러 공격 재개 지시
 - 10.10 언론은 지난 7월 하마스의 새 지도자로 선출된 「신와르」가 대원들에게 이스라엘을 상대로 자살폭탄 테러를 재개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, 이에 따라 무고한 희생자 발생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보도
 - ※ 현재 하마스 내부에서도 희생이 불가피한 만큼 해당 사안에 신중한 것으로 보이며, 자살폭탄 테러발생 시 유사 사례 발생 관련 동향 예의주시 필요

○ 이스라엘, '하마스판 9.11 테러 계획' 문서 발견

- 10.13 언론은 이스라엘 軍이 하마스 사령부를 수색하던 중 항공기를 이용하여 이스라엘의 군사 지휘센터 및 텔아비브 내 고층 빌딩을 무너뜨리는 테러 계획이 담긴 전자 기록과 문서를 입수했다고 보도
※ 이란 대표부와 헤즈볼라는 해당 사실을 부인하였으나, 「이스라엘-하마스」 간 전면전 발발이 고조되는바 관련 지역에 대한 테러 발생 등 예의주시 필요

○ 레바논 헤즈볼라, 이스라엘 軍 대상 드론 공격으로 60여명 사상

- 10.14 언론은 헤즈볼라가 수십발의 로켓 발사로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교란하면서 대규모 자폭 드론을 이용해 군사기지를 타격하여 근무 중이던 군인 4명이 사망하고 60여 명이 다쳤다고 보도
※ 레바논은 지난 10일 이스라엘 공습(22명 사망, 117명 부상)에 대한 대응이라고 발표

아 · 태평양

○ 파키스탄, 발루치스탄에서 무장세력 테러 공격으로 20명 사망

- 10.11 언론은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州의 석탄 광산에서 무장 세력이 로켓·수류탄 및 총기를 사용해 광산을 공격했으며, 이번 공격으로 약 20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다고 보도
※ 언론은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한 테러 조직은 없으나, 파키스탄 발로치 해방군이 지난 7일 12명이 사망한 폭탄테러의 배후를 자처했었다고 부언

○ 인도, 항공기 테러 위협으로 긴급 회항

- 10.14 언론은 인도 여객기가 폭탄테러 위협을 받아 긴급히 회항 후 △승객 대피 △내부 수색 등을 하였으나 허위로 밝혀졌으며, 인도 당국은 연이은 폭탄테러 위협 사건을 적극 수사 중이라고 보도
※ 국내외를 불문하고 허위 신고 시 행정력 낭비가 큰 만큼, 강력한 처벌 필요

아프리카

○ 소말리아, 역내 긴장 고조로 테러단체 세력 확대 우려

- 10.13 언론은 소말리아가 그간 '아프리카의 뿔' 지역에서 테러단체를 억제해왔으나, 에티오피아와 외교적 마찰 등으로 소말리아군의 장악력이 약해진 틈을 노려 테러 단체들이 세력을 확대할 조짐을 보인다고 보도
※ 언론은 美 입장에서 중동·아프리카 권역에서 이슬람 세력에 우위를 점하던 유일한 거점이 취약해진 것으로, 美 외교·안보 정책에 우려의 소재가 될 것이라 부언

인도네시아 역사상 최악의 '발리 폭탄테러'

- '02.10.12 인도네시아 발리 쿠타 해변지역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자살폭탄테러가 발생하여 202명이 사망하고 209명이 부상
 - ※ 사망자 대부분은 관광객으로 호주 88명, 영국 26명, 미국 7명, 한국 2명 등
 - 범인은 폭탄이 든 배낭을 메고 나이트클럽으로 들어가 자살폭탄테러를 자행하였으며, 동시에 클럽 밖에 세워둔 차량에서도 폭탄이 폭발
 - ※ 범행에 사용된 차량에 적재된 사제 폭발물 1톤을 원격으로 폭파
 - 同 공격은 인도네시아 내 알카에다 비밀 캠프에서 위탁훈련을 받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'제마 이슬라미야(JI)'의 소행으로 밝혀짐
 - 同 사건으로 JI 조직원 총 34명이 유죄가 인정되어 구속되었으며, 그 중 3명에게는 사형 · 나머지 조직원들은 징역형 등이 선고
 - 미국과 호주 등에서는 동남아 권역에서 테러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음에도 불구하고, 자국민에게 사전 경고를 하지 않아 피해 발생
- ⇒ 국내외 우리 국민 테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테러 관계기관간 테러 첩보 ·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고, 사전 보호조치 필요

테러 상식

Weekly Terrorism Trends

< 제마 이슬라미야(JI : Jemaah Islamiyah) >

- **(결성)** '40년대 네덜란드 식민통치에 저항하던 급진 이슬람운동에서 기원, 독립 이후 극단주의자들이 동남아 전체를 아우르는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건설을 목표로 '93년 결성
 - ※ 테러단체 지정 : UN·美·호주('02.10월), 英('02.11월), 캐나다('03.4월)
- **(활동지역)** 인니·말레이시아·필리핀 등 동남아 전역
- **(활동수법)** 미국·서방시설 겨냥 폭탄테러, 군·경찰 대상 무장공격
- **(특 징)** △'02.10월 발리 테러 등을 자행하면서 '동남아 알카에다'로 불리며 가장 위협적 테러조직으로 평가되었으나, 정부 소탕작전으로 크게 약화
 △'20.8월 인니 보안당국은 "자국의 장기적 최대 테러위협은 JI의 재건이며, 최근 이들이 조직원 再규합 등 세력 회복에 주력중"이라고 평가
- **(주요테러)** △'02.10월, 발리 나이트클럽 등 연쇄 폭탄테러(호주인 88명 등 202명 사망)
 △'05.10월 발리 소재 식당 등 3곳 연쇄폭탄테러(호주·일본인 등 26명 사망)
 △'09.7월 자카르타 메리어트·리츠칼튼호텔 연쇄자폭테러(57명 사상)